

환율 '1500원대'까지?... '강달러 수혜' 기계·조선업종 주목

환율 1438.9원... 전일비 3.9원 ↑
FOMC, BOJ 예정에 환율 하락 제한
美 트럼프 집권 2기 무역분쟁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400원대 가능성
조선·기계산업, 발주·수출 ↑ 기대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35.0원)보다 3.9원 오른 1438.9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탄핵안 가결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1500원대'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환율·트럼프 정권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선·기계업종에 대한 관심이 가능할 것으로 제시됐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9원 오른 1438.9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1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인한 안정세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전 거래일보다 2.0원 오른 1435.0원에 마쳤다.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일본은행(BOJ)의 금

융정책결정회의 등이 예정되면서 환율 하락이 제한되고 있는 모습이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2016년 탄핵 소추안 이후 상승하던 원화가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 전 반락했던 사례를 고려하면 원화는 재차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며 "원화가 레고랜드 사태 당시에 기록했던 고점인 1445원 부근에

근접했지만 단기간 내 원화가 강세를 보일 요인이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완화로 환율 상승분이 일부 되돌림 되더라도 글로벌 달러 강세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연말까지 1400원에서 1430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지만 하나

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1400원 초반대에서 안정되더라도 미국 예외주의 지속, 트럼프 집권 2기의 무역분쟁 등이 미 달러 강세를 유도할 공산이 크다"며 "원·달러 환율은 내년 상반기까지 1400원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환율이 15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대중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내년에는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며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9300억달러까지 확대하고,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2008년에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1600원까지 올랐었지만,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가 긴급 체결되면서 환율이 안정된 바 있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자 증권가에서는 관련 수혜 종목들을 주목하고 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 상승에 영업이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은 에너지, 기계, 조

선, 자동차, 필수소비 업종 등"이라며 "테크 업종보다는 산업재 관련 업종들이 미국 제조업 부흥과 관련돼 수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기계, 조선 업종 등은 연말을 맞아 차익실현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정책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선업은 트럼프 정권의 화석연료 부흥책에 따라 국내 운반선(탱커, LNG 운반선)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계 산업도 대중 무역정책으로 인한 수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내년 2분기 중후반 국내 수출 전망은 지금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허 연구원은 "지금부터 천천히 수출 증가에 환율수혜가 예상되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가능해 보인다"며 "의외로 반도체, 유틸리티 업종의 영업이익은 원달러가 하락할 때 빠르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이복현, 日 3대 은행 등에 밸류업 성과 알려

은행·금융지주·공적연금 고위급 면담
주요 금융현안 관한 의견 청취
양국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도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카메자와 히로노리 MUFG 그룹 CEO가 고위급 면담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3대 은행·금융지주 등 5개 기관들과 만나 만나 한국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비상 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에도 "한국 금융시장은 안정적"이라고 강조하며 한국 자본시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 원장이 일본 현지에서 3대 은행·금융지주·공적연금을 만나 고위급 면담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위급 면담에 참여한 일본 대형은행은 ▲MUFG ▲SMBC ▲Mizuho 등이다. 제8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출장 중인 이 원장은 전날 이토 히데키 일본 금융청 장관과 만났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중국 성

장둔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양국 금융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주요 금융현안에 관한 글로벌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일본 은행·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과 금융시장 변동성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회복했으며 시스템이 복원력을 보였다"며 "한국 경제·금융시장은 정상 작동 중이며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금융회사의 투자환경 악화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일본 금융회사의 한국 내 영업활동에 본사 차원의 지속적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통화·산업·금융 정책 조합으로 경기 하방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회담에선 양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도 논의됐다.

이 원장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을 소개하면서 우량·대기업을 중심으로 참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조만간 시장에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92개사, 전체 시총의 34.1%에 해당한다. 이 원장은 "주주이익 보호 원칙 도입, 자사주제도 개선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번 출장에서 일본 밸류업 추진 우수 기업인 TSI홀딩스의 재무총괄책임자와도 만남을 가졌으며, TSI홀딩스는 기업가치 제고 전략·실행의 실제 사례를 공유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고점논란에도 팔란티어·테슬라 공격매수

해외주식 Click

AI·자율주행 등 미래성장성 높게 판단
팔란티어 2.3억株, 테슬라 2.2억株 매수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LTR)', '테슬라' 등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미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는 지난주(12월 10~16일) AI 데이터 분석회사인 팔란티어의 주식을 2억 3782만달러 어치 사들였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올 들어 341%가량 오르면서 고점에 다다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나 투자자들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팔란티어 주가에 대

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팔란티어는 AI 기반 데이터 보안과 관리 솔루션을 통해 상업 부문에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매출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팔란티어의 사업 확장 능력을 높게 평가하며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서학개미들의 매수세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테슬라에서도 두드러졌다. 서학개미는 지난주 테슬라 주식을 2억 2632만 달러 어치 사들였다.

테슬라의 주가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하면서 정치적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다. 테슬라는 지난 13일 436.23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16일에도 6.14% 급등한 463.02달러를 기록하며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웠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증권, 해외주식 자산규모 30兆 돌파

전년비 73% 늘어... 계좌수 47% ↑

삼성증권은 해외주식 자산규모가 30조원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규모다. 해외주식 거래 계좌수도 전년 대비 약 47% 늘어난 53만개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의 해외주식 자산규모 추이를 보면, 해당 기간 연평균 성장률(CAGR)이 34.1%로 집계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삼성증권의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주로 미국 주식에 집중하고 있지만,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의 주식에도 직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일본, 영국 등이 미국에 이어 자산 기준 2위, 3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은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대형 빅테크 기업 주식이다. 또한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위 보유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증권은 올 연말까지 해외주식 신규 및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는 미국 주식의 온라인 거래수수료를 첫 3개월간 0원으로 제공하며, 이후 9개월간은 거래수수료를 0.03%~로 적용한다. /원관희 기자

미래에셋증권, ESG 경영성과 '13년 연속' 인정받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 편입

미래에셋증권이 S&P글로벌(GlobaI)이 발표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World Index)'에 13년 연속으로 편입됐다.

17일 S&P글로벌에 따르면 증권업이 속한 다각화된 금융서비스 부문(Diversified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s)은 총 18개의 글로벌 기업이 월드 지수에 편입됐다. 미래에셋증

권은 해당 부문 내에서도 우수한 ESG 역량을 보였으며, ▲기후전략 ▲개인정보보호 ▲중대성 평가 공시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올해 서스틴베스트로부터 상·하반기 모두 금융권 최고등급인 AA등급을 받은 데 이어, 한국 ESG기준원으로부터 증권업 유일 3년연속 종합 A등급을 받아 국내 시장에서도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5년까지 지속가

능금융 45조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올해 3분기 기준 39.5조 원을 기록하며 목표치의 약 88%를 이행했다. 또한 지구온난화 이슈에 동참하고자 2021년 국내 금융사 최초로 RE100에 가입하고, 재생에너지 인증서(REC)장기구매계약과 가상전력구매계약(VPPA)을 체결해 현재까지 목표의 약 58%를 달성했다. 이외에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캠페인과 기부활동 등을 기획하여 임직원의 참여도를 높였다. /허정윤 기자